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에 해외 언론관계자 이목 집중

—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



1. 환영사를 하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 기념사를 하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 축사를 하는 김두현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서울 플라자호텔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와 새로운 지평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하루 앞선 11일 국내외 전문가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된 리셉션에서는 박용상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플립 보예츠 벨기에 언론평의회 전 사무총장, 쉬징 중국 북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두현 전 언론중재위원장의 축사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이어진 만찬에서는 도나 달리아 이스라엘 언론평의회 위원장과 염규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석좌교수가 건배를 제의하며 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기원했다.

12일부터 시작된 컨퍼런스는 모두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은 중국의 재난 보도가 신중국 수립 후 지난 65년간 ‘당 본위’ ‘사건 본위’에서 ‘인간 본위’로 변해 왔다고 발표하면서 점차 인간성 존중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우위보 지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추측성, 유언비어성 보도 등 공신력 없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재난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범죄보도에 관해서는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범죄보도 관행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으며 세 번째 주제인 자살보도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가 해당 평의회에서 최근 비윤리적 자살보도로 평결한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언론평의회, 옴부즈맨 등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다룬 2세션에서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며 “소송 없이도 효과적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4. 왼쪽부터 1세션 발제를 맡은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장,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카타오카 토모유키 일본 변호사
5.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지사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무하마드 칸 사프카트 파키스탄 언론평의회 위원장
6. 왼쪽부터 2세션 발제를 맡은 크리스티아나 첼시아 쉐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타르무 타머르크 에스 토니아 공영방송사 옴부즈맨, 정준영 특허법원 부장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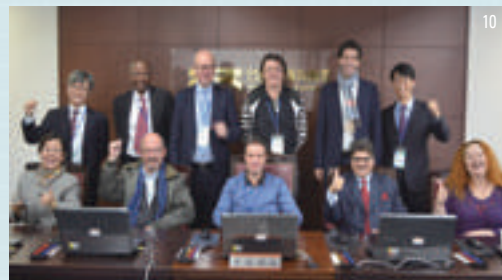
하여 쉬징 북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국 언론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역시 식품안전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한국과 유사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염규호 미국 오리건 주립대 석좌교수는 ‘잊혀질 권리’의 문제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어느 것이 우선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관계자는 미국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왔다는 것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안보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각 나라의 판단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3세션의 또 다른 주제는 일선 기자들에게 항상 고민이 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 둘 중 무엇을 외면할 수 있나’였다. 3세션의 발제자인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은 인터넷에 기반한 뉴미디어 시대에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다는 전제 하에 신속성은 정확성을 떨어뜨리며 대중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주로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시간 보도’, ‘라이브 뉴스’와 같은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에 관해 “세계 각국의 언론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컨퍼런스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언론환경과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좋은 기회”였으며 “더불어 한국의 언론 조정중재제도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정리 : 양재규 팀장(연속교육팀)



7. 왼쪽부터 3세션 제1발제자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 사회자 안착히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제2발제자 발라즈 웨이어 헝가리 편집자협회장
8. 3세션 발제자인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알렉산더 와질렉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9.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 단체사진
10.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을 방문한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